

THE 20th WORLD KNOWLEDGE FORUM

2019. 9. 25 - 27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4층
전화: 02-2000-2411~5 팩스 : 02-2000-2419
일반문의: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wkf_reg@mk.co.kr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4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04627
Tel: +82-2-2000-2411~5
Fax: +82-2-2000-2419
E-mail: knowledge@mk.co.kr

매일경제 **MBN**

**KNOWLEDGE
REVOLUTION 5.0**
Perspi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THE 19th WORLD KNOWLEDGE FORUM

Collective Intelligence: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October 10-12, 2018 Jangchung Arena • The Shilla Seoul, Korea



MESSAGE FROM THE CHAIRMAN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지식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지원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최고 글로벌 포럼으로 우뚝 선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도전으로 포럼의 품격을 높여가며 글로벌 포럼의 역사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전 세계의 화두와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포럼의 표준을 만들어내며 명품포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올해도 그동안 그 어떤 포럼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지식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G2 간 무역전쟁은 기술 패권전쟁으로 확산되고, 경제와 금융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편 리더십 부족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지식혁명 5.0(Knowledge Revolution 5.0)’을 통해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지식혁명 5.0은 기술은 물론 제도,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전체 인류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설립 때부터 지식을 통한 인류의 발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각 분야의 파워엘리트와 글로벌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이 세계지식포럼에 모여 세계가 조화로운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과 해안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등록절차안내

- 제20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참가신청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 등록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1. 온라인 참가신청 절차



2. 참가비 안내

구분	조기등록 (~ 7월 19일)	일반등록 (7월 20일 ~ 9월 11일)
일반	₩3,300,000	₩3,600,000
할인(50%)	대학생, 장애인(1~3급) ₩1,800,000	

제20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2019년 9월 25일(수) ~ 27일(금)
장소 장충아레나 • 신라호텔

조기등록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마감일은 7월 19일까지입니다.

· 19일까지 신청은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11일까지입니다.

· 일반등록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참가자에게는 중식(3회), 만찬(1회)이 제공됩니다.
-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등록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11일(수) 오후 6시까지 취소신청해주시어야 합니다.
- 참가비에 숙박요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4층
Tel 02-2000-2620~3 Fax 02-2000-2626 E-mail wkf_reg@mk.co.kr



THE 20th WORLD KNOWLEDGE FORUM

세계지식포럼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0년 10월 출범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 격차 해소,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후 지금까지 총 4,200여 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4만 6,3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 축제로 만들었다. 조지 W.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제73대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제23대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제7대 독일 총리, 모리 요시로 제86대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제25대 호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레르명민 제13대 아세안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폴 케네디, 마이클 포터, 프란시스 후쿠야마, 조셉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다.

올해 20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250여 명의 연사와 3,500여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Knowledge Revolution 5.0: Perspi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제24대 프랑스 대통령, 공동의장인 에스코 아호 제37대 핀란드 총리 등 전현직 국가 정상은 물론 피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창업자,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에릭 위안 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라지브 듀베이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 사장, 로빈 니블릿 채텀하우스 소장, 브라이언 두퍼로 AIG CEO,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World Knowledge Forum Topics



KNOWLEDGE REVOLUTION 5.0

Perspi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지식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해 지금까지 축적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의사결정의 기준 역할을 해왔다. 지식이 의사결정에 차지하는 역할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강화되었고, 한 사회가 보유한 지식의 역량이 바로 그 사회의 수준은 물론 사회 자체를 정의해왔다. 달리 말하면 인류의 문명사는 지식의 발전사로 요약된다. 인류는 지금까지 네 차례 ‘혁명’이라고 일컫는 폭발적인 지식의 확장을 경험했다. 지식혁명 1.0은 유발 하라리가 말한 인지 혁명에서 시작했다. 인류가 처음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사고하기 시작함으로써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식혁명 2.0은 농업혁명으로 찾아왔다. 수렵·채취에 의존하던 원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고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지식혁명 3.0은 과학혁명이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주요 국가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제국이 출현하는 시기다. 지식혁명 4.0은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확대됐고, 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쉽게 빠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이 증대되었고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같은 혁명들은 총체적 인류 삶의 양태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고 그 결과 언제나 새로운 사회의 도래로 이어졌다. 농업혁명이 발생한 후 원시사회는 농업사회로 전환됐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사회는 완전히 기존 체제와 다른 사회로 바뀌었다. 마치 빅뱅이 일어난 후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질이 탄생했듯, 전방위적인 혁명 후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

이제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 문턱에 와있다. 대전환기엔 그렇듯 전 세계 정치·경제·사회 모습은 불확실성으로 혼란스럽다. 글로벌 경제는 G2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경제통합 붕괴, 경제 위기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글로벌 정치 상황 역시 북핵 위기, 중동 갈등,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극도로 취약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발전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이 되기에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G2 간 기술 패권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에 제20회 세계지식포럼은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을 제안한다. 지식혁명 5.0은 전체 인류가 기술발전과 함께 진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사적 접근 방식을 뜻한다. 이는 신기술만 도입하고 이에 걸맞은 사고방식과 제도·문화의 도입 없이 성공적인 혁명을 하기 어렵다는 과거의 교훈이기도 하다. 지식혁명 5.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근대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는 지식(intelligence)의 핵심 덕목으로 통찰력(perspicacity)을 제시한 바 있다. 제20회 세계지식포럼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류 미래를 밝게 할 신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트랙 및 연사 소개

TRACK & SPEAKER INTRODUCTION

Track Introduction

01 지식혁명 5.0

인류는 새로운 지식의 전환기에 도래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 네 차례의 ‘지식혁명’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나 현재 직면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G2 무역·기술 패권 전쟁, 북한 비핵화,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전체의 혁신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혁명 5.0’이 절실하다. 전현직 국가 정상들과 세계 최고 글로벌 CEO들이 기조연설 등을 통해 지식혁명 5.0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02 혼란기의 뉴 리더십

세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반(反) 난민, 반 EU를 내세운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녹색당이 표를 휩쓸면서 유럽의 정치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던 중도 좌·우파 등 기성 정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 미중 갈등, 브렉시트에 따른 EU의 균열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싱크탱크 수장과 전직 정상급 리더를 비롯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혼란기의 지정학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03 전환기 세계 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로 중국 성장률이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미국 역시 경제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다. IMF는 세계 경제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이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19년 세계 경제 진단과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논의한다.

Track Introduction

04 기술 혁신의 미래

기술 혁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산업계의 지형, 인간의 생활 방식을 뒤바꿔놓고 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우려가 교차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5G, 로봇, 자율 주행 등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첨단 기술이 이끄는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05 인사이드 차이나 & 원아시아

세계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원 아시아(One Asia)의 미래를 논의한다. 아시아의 기업인, 정치인, 학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과 아세안(ASEAN)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아시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원 아시아 리더십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 경제력 격차 등 하나의 아시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06 금융의 재탄생

주요국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트랙에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글로벌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세션들을 선보인다. 특히 월가 거물들이 연사로 참여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시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 전략에 대한 해안을 내놓는다. 금융권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이 글로벌 금융 환경을 집중 점검하는 세션도 마련된다.

07 즐거운 인생: 매 순간 활기차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도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번 트랙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한다.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혹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간단한 부탁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거절당하기 연습>의 저자 지아 장의 강의를 추천한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자가 훈련을 통해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직접 소개하고 효과적인 팁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을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 밖에 밥 보르 돈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진행하는 협상 기술 워크숍 등을 비롯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다채로운 세션이 진행된다.

Speaker Introduction



반기문 Ban Ki-Moon
제8대 UN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06년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한차례 연임을 거쳐 지난 2016년까지 재직했다.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2위에 선정됐다. 2016년 미국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는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로 세계의 사상이 100인 중 한 명으로 반 전 사무총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해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같은 해 4월에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이사장에 선임됐다. 2019년 4월부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제 20회 세계지식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에스코 아호 Esko Aho
제37대 핀란드 총리

에스코 아호는 36세에 핀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 전직 핀란드 중앙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총리 재직 시 핀란드의 유럽 연합(EU)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게 대표적인 성과다. 그의 리더십으로 핀란드 의회를 설득해 EU 합류를 이끌었다. EU 가입 이후 경제 위기였던 핀란드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 그는 총리직의 소임을 마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그는 국가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맨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2008년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의 수석 부사장으로 합류해 사회적 책임과 대외협력 관계를 담당했다. 2010년부터는 ‘러시아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스킨코보 혁신 센터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올해 2019년에는 제 20회 세계지식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프랑수아 올랑드 Francois Hollande
제24대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실행된 일련의 개혁은 프랑스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15년과 2016년 일어난 국가 테러 공격에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특히 테러 조직과의 전쟁에서 말리 북부와 사헬지역에 살행이 괴멸 작전 (Operation Serval)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며 성공시켰다. 그는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게 골자인 파리 협정이 대표적이다.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을 프랑스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국가적인 주요 결정사항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 그는 퇴임 후 현재 프랑스 국민 통합 단체인 ‘la France s’engage’ 재단의 의장을 맡고 있다.

Photography
by Benoit Granier



에릭 위안 Eric Yuan
줌 창업자 겸 CEO

에릭 위안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이자 현직 최고경영자이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기 전에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공학 분야 부사장(CVP)을 역임하며 당시 회사의 협업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다. 또한 그는 웹엑스의 초기 공학 개발자들 중 한 명이며 공학 개발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1997년에 그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을 때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불과 10명에 불과했다. 현재 줌은 전 세계적으로 800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8억 달러가 넘는 기업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에릭 위안은 2017년에 미국의 비즈니스·기술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52명의 첨단 기술 기업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글래스도어에서 선정한 대기업 CEO 중 1위에 올랐다. 발명가로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실시간 협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1건의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건의 특허가 출원 중이다.



스티브 첸 Steve Chen
유튜브 공동창업자

스티브 첸은 유튜브의 공동창업자 겸 전 최고기술책임자(CTO)다. 그는 1999년페이팔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유튜브의 또 다른 창업자인 채드 헐리를 만났다. 2005년에 유튜브를 설립하기 전 그는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다. 스티브 첸은 최근 구글 벤처스의 EIR(entrepreneur in residence)로 합류했다. 그는 유튜브를 동영상 스트리밍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올려놓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맞춤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의 활약으로 유튜브는 창업 후 1년도 안 돼서 16.5억 달러가치로 구글에게 유튜브 매각을 성사시켰다. 2001년에는 아시안 사이언티스트 잡지에서 주목해야 할 15명의 아시아계 과학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2018년에는 일리노이 주지사로부터 주의 최고 영예인 ‘Order of Lincoln’ 훈장을 수여받았다.



제리 양 Jerry Yang
AME 클라우드 벤처 창업자(야후! 공동창업자)

제리 양은 1995년에 설립한 ‘야후!’의 공동 창업자다. 야후!가 2000년대 글로벌 검색 엔진으로 군림하도록 이끌었고 2012년까지 야후!의 이사를 맡았다. 그는 야후!가 일본 지부와 알리바바의 관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 야후!가 중국과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제리 양은 워크데이(Workday), 알리바바 그리고 레노버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제리 양은 현재 AME 클라우드 벤처의 창업 파트너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첨단 기술 스타트업 전문 투자자와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정보 및 클라우드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신념으로 AME 클라우드 벤처를 설립했다.

Speaker Introduction



조 말론 Jo Malone
조 말론 창업자

조 말론 런던의 창업자인 조 말론은 영국의 향수 명인이다. 그녀의 조 말론 향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녀는 안면 치료사로 일하면서 향이 나는 제품을 만드는 재능에 눈을 뜨게 됐고 본인의 부엌에서 직접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 말론 런던’ 브랜드 로고를 론칭한 후 눈부신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동시에 엄청난 유명세를 치렀다. 2006년 회사를 매각하고 2008년 대영제국훈작사(MBE)를 수여받았다. 은퇴 이후에도 향수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더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 2011년 11월 조 말론은 조 러브스 브랜드를 출시했다. 2018년 영국의 창조성과 사업을 알린 공로로 대영제국훈작사(CBE)를 한 번 더 수여받았다.



제임스 캐시 James Cathey
퀄컴 글로벌 CEO

제임스 캐시는 글로벌 사업 총괄 사장 겸 퀄컴 수석 부회장이자. 여러 국가의 사업 개발, 운영, 유통 채널 관리, 영업 등 제반 업무를 이끌고 있는 동시에 각 국가별 사업 관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퀄컴 아태·인도 지역 사장을 역임한 제임스 캐시 글로벌 사업 총괄 사장은 해당 지역 내 퀄컴 사업 및 운영 기능 전반을 담당했다. 그전에는 퀄컴 일본 사업 운영 총괄 및 대만 지사장으로 근무했다. 퀄컴 테크놀로지 합류 이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MicroDisplay)에서 임원직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17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정보 디스플레이학회(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SID)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보이시주립대학교(Boise State University)에서 마케팅 경영 학사를 취득했다.



파티 비롤 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은 2015년부터 국제 에너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18년 1월에 재당선되어 2019년 9월부터 상임 이사를 연임하게 됐다. 그의 운영으로 국제 에너지 기구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그는 신흥 국가들을 대거 포용하며 기구의 에너지 안보 방침을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국제 에너지 기구를 클린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 발전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했다.



제임스 존스 James L. Jones
제22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존스 전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은 스코우크로프트 센터의 의장이었다. 전 미군 유럽 사령부(EUCOM)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EUR)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국가 안보보좌관이 된 이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그리고 그 외에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이 명확한 비전과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2월 은퇴 후 그는 미상공회의소 소속 21세기 에너지 협회(U.S. Chamber of Commerce’s Institute for 21st Century Energy)의 CEO가 되었다. 2008년에는 미 국무부에서 중동지역 안보 특사로 활동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 안보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로빈 니블릿 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로빈 니블릿은 2007부터 채텀 하우스라 불리는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부사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였다. 그는 영국의 외교 정책, 유럽의 정치·경제적 안보, 그리고 대서양 연안 국가 간의 관계 분야 전문가다. 그는 2015년에 영국이 국제 정세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훈을 인정받아 성 마이클·성 조지 훈장(CMG)을 수여 받았다.



에드윈 풀너 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업자 겸 회장

에드윈 풀너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다. 현재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맡고 있다.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공산권에 대한 압박 정책인 레이건 독트린의 주요한 지원자로 평가받았다.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인사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저서로는 <미국을 바로잡다>와 <자유의 행진> 등이 유명하다.

Speaker Introduction



누리엘 루비니 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는 경제학자로 현재 뉴욕대학교 스톤 경영 대학원에서 교수를 맡고 있다. 동시에 경제 자문 회사인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최고경영자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수석 경제학자였다. 2006년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용거래와 주택 시장 버블로 인한 경제 침체를 경고했다. 그의 예측은 2008년에 버블이 터지면서 세계 금융 위기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브라이언 두퍼로 Brian Duperreault
AIG CEO

브라이언 두퍼로는 현재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의 최고경영자다. 그는 1973에 보험수리사로 처음 AIG에 입사했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으며 고속 승진했다. 그는 1994년 AIG를 떠나 2004년까지 보험회사 ACE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Marsh & McLennan Companies (MMC) 회장과 Hamilton Insurance Group 최고경영자를 연이어 맡으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그의 첫 직장이었던 AIG에 최고경영자로 복귀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Tony Fernandes
에어아시아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기업가로 2001년부터 에어아시아의 CEO 자리를 맡고 있다. 에어아시아에 합류하기 이전, 1989년부터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영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상업적·교육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공헌을 인정받아 2011년에 대영 제국 사령관 훈장(CBE)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에는 항공산업을 통한 프랑스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2011년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인 100인의 기업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키런 머피 Kieran Murphy
GE헬스케어 CEO

키런머피 GE헬스케어 대표이사 사장은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에 혁신적 헬스케어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GE헬스케어를 이끌고 있다. GE헬스케어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주요병원 등에게 진단영상, 병원 컨설팅,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키런 머피 사장은 GE헬스케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전 GE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라지브 듀베이 Rajeev Dubey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 사장

라지브 듀베이는 마힌드라 그룹의 이사회의 임원이다. HR과 기업 서비스 부문의 공동 회장이자 부품 시장 부문 최고 경영자다. 그는 마힌드라 그룹의 인적 자원, 통신, 정부기업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그리고 시설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그는 29년 동안 타타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부터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으로 이동했다. 라지브 듀베이는 St. Stephens College와 델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MBA 취득을 위해 예일 경영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얀 므로직 Jan Mrosik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COO

얀 므로직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의 최고운영책임자(COO)다. 그는 전기와 산업 공학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96년 처음 입사한 후 지난 20년 동안 지멘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1998년 지멘스와 보다폰 D2 간의 통신 사업 구축의 주축으로 참여했다. 이어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멘스 지사로 부임하여 통신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에너지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송전 시스템 부문과 에너지 관리 부서의 CEO를 맡았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 ‘Vision 2020+’ 전략에 따른 조직개편 전까지 디지털 팩토리 부문 CEO를 맡았다. 그는 전기·전자 산업 중앙협회(ZVEI·Central Association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의 이사진 중 한 명이자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의 시장 전략위원회의 일원이다.

Speaker Introduction



팀 드레이퍼 Tim Draper
DFJ 창립자

팀 드레이퍼는 벤처 사업 투자자다. 그는 드레이퍼 피셔 저비스(DFJ)과 드레이퍼 벤처 네트워크의 창업자이며 그의 회사는 트위터 TV, 스카이프, 테슬라, 바이두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에 투자했다. 그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다. 팀 드레이퍼는 SNS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끼리의 상호 마케팅을 가능하게 만든 바이럴 마케팅의 창시자다. 이 마케팅 방식은 핫메일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통신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성과로 세계 기업가 포럼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류벤 라이 Reuben Lai
그랩 금융 그룹 대표

류벤 라이는 그랩 금융 그룹의 공동 대표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산층의 금융적 수용성을 확장 및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그랩 금융 그룹의 개방형 생태계 전략을 주도하며 제품 로드맵의 개발과 기업 규모의 확장을 이끌고 있고 그랩 금융 그룹의 대표로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만한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그는 개발 부장으로서 차량 임대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소개하면서 그랩의 성장을 주도했다.



자칭귀 Jia Qingguo
베이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자칭귀는 전 베이징대학교 국제지역 학장이며 현재는 국제지역학 교수다. 그는 1988년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베이징대학교를 포함한 6개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냈다.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자칭귀 교수는 그 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사 관련 학술지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동북아시아의 정황, 중국과 대만의 관계, 중국의 외교 정책과 정치에 대한 글을 출판하고 있다.



린이푸 Lin Yifu
베이징대 교수

린이푸는 경제학자이자 신구조경제학 연구소의 학장이며 베이징대학교의 국가개발연구원의 명예 학과장이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은행의 부총재이자 수석 경제학자였다. 그전에는 15년 동안 베이징대학교에서 싱크탱크 Chine Centre for Economic Research (CCER)의 설립자면서 책임자였다. 그는 중국 국무원의 평의원이면서 상임위원회와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on Conference의 일원이기도 하다.



리차드 브라우닝 Richard Browning
그래비티 인더스트리 창업자 겸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은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의 창업자이며 조종사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는 1인용 제트 수트를 디자인 및 제작하는 회사다. 인류 비행이라는 영역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는 2017년 3월에 인간의 비행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한계와 관념에 도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는 세계 각지에서 100회가 넘는 비행을 성공시켰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TED 등 온라인 강연 플랫폼에서 공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푸성 Fu Sheng
치타모바일 창업자 겸 대표

푸성은 중국 대표 모바일 기업인 치타모바일의 창업자 겸 회장이다. 그전에는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회사인 치후 360에서 소프트웨어 부장으로 일했다. 그의 리더십으로 2014년에 치타모바일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성공했다. 모바일 보안 프로그램인 클린 마스터를 선보여 전 세계 10억 명 가까운 유저가 사용하도록 했다. 보안 서비스를 넘어 최근에는 인공지능,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틸리티 사업에서 혁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Speaker Introduction



왕하이통 Wang Haitong
메그비(Face++) CFO

왕하이통은 현재 메그비(Megvii)의 자금 관리 이사(CFO)이다. Megvii는 세계 인공지능과 IoT 제품의 선두 기업 중 하나이다. Megvii에 입사하기 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자기자본직접투자 부서(Principal Investment Division)와 모건스탠리에서 투자은행 부서(Investment Banking Division)에서 전무를 맡았다. 그녀는 베이징대학교에서 재정학과 통계학 복수 학사 학위를 받았다.



고노 마사미치 Kono Masamichi
OECD 사무차장

고노 마사미치는 OECD에 합류하기 전 일본의 금융청(JFSA)에서 국제 관계부 차관과 아시아 금융 협업 부서의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제증권 감독 기구(IOSCO)의 기술 위원회의 회장을, 이후에는 국제증권 감독 기구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금융 안정 자문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의 공동 회장과 국제회계기준(IFRS) 감시 위원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올리버 톤비 Oliver Tonby
맥킨지 앤 컴퍼니 아시아 총괄 회장

올리버 톤비 맥킨지 앤 컴퍼니 아시아 총괄 회장은 싱가포르 맥킨지 디지털 역량 개발 센터를 이끌고 있다. 1997년 맥킨지 합류 이래 에너지, 사모펀드, 첨단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했다. 기업의 인사·조직, 리더십 개발, 인수·합병 관련 프로젝트도 경험했다. 지역 개발 관련 의제를 다루는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정상 회의 등에 참석해 강연하기도 했다. 현재 싱가포르 재무 장관 주도 미래경제 위원회에서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손영권 Sohn Young-Kwon
삼성전자 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하만 이사회 의장

손영권 사장은 삼성전자 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자 하만 이사회 의장으로서 글로벌 혁신과 투자,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전략 및 개발을 주도하며, 80억 달러 규모의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 인수를 이끌었다. 그는 삼성전자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Oak Technologies, Agilent Semiconductor (현 Avago), Inphi Corporation의 CEO를 맡았으며, PLX Technologies, Synnex Technologies, Inphi 사의 대표이사과 이사회 멤버로서 기업공개를 이끌었다.



페르난도 로메로 Fernando Romero
프리(FR-EE) 창업자 겸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페르난도 로메로는 건축 디자인 회사인 FR-EE의 창업자다. 그는 2002년에 세계 경제 포럼(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of Tomorrow)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명의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3년에는 미국 건축가 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뉴스쿨 건축 디자인 전문대학과 일리노이 공대, 그리고 콜럼비아 대학에서 강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지 타나시제비치 George Tanasijevich
마리나베이 샌즈 회장

조지 타나시제비치는 세계적인 다국적 복합관광단지 개발 기업 라스베이가스 샌즈그룹의 자회사 마리나베이 샌즈의 대표 겸 CEO다. 라스베이가스 샌즈의 글로벌 개발담당 상무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최고위 경영진과 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이력을 쌓았다. 폭넓은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라스베이가스 샌즈와 마리나베이 샌즈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복합 리조트를 개발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샌즈그룹의 대표 리조트이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키워냈다. 2009년 글로벌 게이밍 비즈니스 매거진이 선정한 ‘올해 주목할 25인’으로 선정됐다.

* 추가연사들은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www.wkforum.org)를 참고하세요.

MBA INTRODUCTION



INSEAD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11 세계 MBA 100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인시아드(INSEAD) 경영 대학원은 매년 세계지식포럼에서 미니 MBA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영 대학원 교수들로부터 경영학의 진수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인시아드는 프랑스 외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등 모두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MBA입니다.



HEC Paris

유럽 최고의 경영 대학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 경영 대학원 HEC는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CEO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IE 비즈니스 스쿨

스페인 명문 비즈니스 스쿨 IE스쿨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 대학원입니다. 2017년 기준 IE는 29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28여 국에 50,000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IESE

IESE는 스페인 Navarra 대학의 경영 대학원으로서 미국 하버드 경영 대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1964년 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뮌헨, 뉴욕, 상파울로 5개 도시에서 캠퍼스 보유 중이며 FT에서 선정한 Executive Education 부분 1위 (2015-2018),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MBA 프로그램 2위 (2017), FT가 선정한 유럽 최고 글로벌 MBA 3위 (2019)를 차지했습니다.



NYU 스텐

뉴욕대 스텐 경영 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칭화대 MBA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저명한 경영 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이론과 체계,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은 물론 올바른 가치와 윤리를 가르쳐 중국과 세계를 무대로 널리 활동할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 학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 대학원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과 경제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인 만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AEKYUNG MEDIA GROUP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월간 현대경영, 엠브레인 등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직장 구독률 1위 신문’, ‘서울 도심 구독률 1위 신문’, ‘14년 연속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명품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 및 구매력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ABC 협회로부터 발행부수 707,749 부(2018 년분)를 공인받은 명실상부한 1등 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홍보 매체로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일본경제신문과 인민일보, 파이낸셜 타임즈, 상하이TV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및 방송 제작사들과의 콘텐츠 교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지분 투자 등의 업무를 제휴하여 매경미디어그룹의 특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을 구성했습니다.

MBN

Maeil Broadcasting Network

MBN은 1995년 국내 최초의 보도 전문채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로 새롭게 출발한 MBN은 17년동안의 보도 채널의 노하우와 함께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또 방송계 *인포테인먼트 장르 열풍을 불러일으킨 재미와 정보·유익함을 갖춘 예능, 따뜻함과 진정성을 담은 착한 교양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약 덕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힐링 예능’, ‘착한 교양’, ‘스토리 교양’, ‘리얼 관찰’ 등 새로운 포맷의 MBN 식 장르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MBN 시청자 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MBN은 차별화된 편성 전략과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명품 콘텐츠로 끊임없이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와 공감할 것입니다.

* infortainment, 정보와 오락을 뜻하는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